

포스코, 친환경 철강 생산기지 다변화... 발레 협력체계 구축

(브라질 철광석 공급사)

저탄소 열간성형철 생산 업무협약
생산과정 탄소배출 저감 공동연구
“안정적 HBI 확보 방안 마련할 것”



포스코 이주태 구매투자본부장(왼쪽)과 발레 루이스 메리즈 글로벌 철광석 판매 본부장이 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발레 본사에서 저탄소 HBI 생산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한 포스코가 친환경 철강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동반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철광석 공급업체와 저탄소 철강 원료 생산 협력에 나서며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에 착수했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경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초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학동대표이사부회장이 매 분기 회의를 주재하며 전제적인 탄소중립 경영을 컨트롤 한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강화를 위해 이주태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글로벌 철광석 공급사인 발레(Vale)와 저탄소 열간성형

철(HBI) 생산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명식에는 이주태 포스코 구매본부장과 루이스 메리즈 발레 글로벌 철광석 판매 본부장이 참석했다.

포스코와 발레는 1976년 이래 40년 이상 철광석 거래를 이어온 전략적 협력 관계다. 이번 협력을 통해 지난해 11

월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발레와 함께 진행해 온 탄소중립 관련 공동연구가 HBI 사업까지 확장됐다.

HBI는 천연가스를 환원제로 사용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 내 직접환원철(DRI)를 만든 뒤 이를 조개단 모양으로 성형한 가공품이다. 고로에 철광석을 직접 넣어 쇳물을 생산하는 대신 HBI

를 전기로에 녹여서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포스코와 발레는 HBI 생산을 위해 ▲후보 지역 선정 ▲생산 공정 별 원가 및 투자비 분석 ▲생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올해 연말까지 HBI 생산 공장의 최적 입지부터 규모, 생산 방식 및 경제성 등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포스코가 HBI 생산을 위해 해외 광물 기업과 협력에 나선 것은 호주 헨콕(Hancock)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3월 포스코는 헨콕과 HBI 사업 추진에 대한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포스코는 오는 2027년까지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각각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를 각각 1기씩 신설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헨콕에 이어 발레와 HBI 생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이들 전기로에서 안정적으로 쇳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저탄소 철강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다. 최근 아르셀로미

탈이 오스트리아 보스트알피네(VAI)가 소유한 미국 텍사스 내 HBI 공장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최근 글로벌 철강업계 내 HBI 확보 경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주태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은 “글로벌 철광석 공급사이자 탄소배출 저감에 적극적인 발레와의 협력 분야를 HBI로 확대하게 됐다”며 “원료 공급사로서 역량을 보유한 발레와 함께 안정적인 HBI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루이스 메리즈 발레 글로벌 철광석 판매 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양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며 “HBI 사업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양사 협력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스코와 발레가 지난 1996년 공동 투자를 통해 설립한 철광석 펠렛 생산 합작 법인인 코브라스코(Kobracso)의 누적 생산 1억t 달성 기념식도 브라질 비토리아 현지 공장에서 열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독일 수출

스위스 이어 두 번째 유럽 수출
물류, 제조 등 7개사에 27대 공급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현대자동차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앞세워 유럽 최대 상용차 시장인 독일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최근 물류, 제조 등 독일 7개 회사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27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위스 23개 회사에 47대를 전달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유럽 수출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독일 연방디지털교통부(이하 BMDV)의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른 것으로, 7개 회사가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으로 BMDV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최근 독일 정부는 친환경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친환경 상용차 구입 업체 및 충전소 등 인프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별로 대상 차량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이러한 독일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4월 수소상용차 전문 판매법인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독일(이하 HHMG)’을 설립하고 독일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려왔다.

현대차가 공급하게 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총 중량 42톤급(연결차 중

량 포함) 대형 카고트럭으로, 2개의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180kW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최고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을 계기로 독일 수소상용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HHMG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독일 내에서 수소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마크 프레이물러 현대차 상용혁신사업부장(전무)은 “이번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계약으로 독일 내에서 현대차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는 독일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으로 사업 확대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황민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연구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김금용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탄소포집용 기체분리막 활용 고순도 질소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롯데건설 고순도 질소생산 기술 개발 맞손

생산 공정, 녹색인증 등 협력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과 손잡고 기체분리막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시설을 활용한 고순도 질소 생산 기술 개발에 나선다.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은 지난달 27일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탄소포집용 기체분리막 활용 고순도 질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고순도 질소 생산 공정개발 ▲실증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녹색인증 ▲사업화 적용 검토를 추진한다. 석유화학 공정에는 제품 생산 시 배가스가 발생한다. 배가스에는 이산화탄소도 포함되어 있지

만 질소 역시 70% 가량 포함되어 있다. 롯데케미칼은 배가스에 포함된 질소를 모아 고순도화 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을 통해 추후 CCU 설비 설치 시 경제성도 향상시킬 전망이다. CCU 기술은 배가스를 수집해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롯데케미칼은 고순도 생산 기술을 통해 확보한 질소를 공장에서 활용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예정이다. 황민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연구소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CCU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롯데케미칼 기체분리막 CCU 기술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국내 최초

“하이 엘지! 냉수 550ml 쥐”... 음성인식 퓨리케어 정수기 탄생

LG전자 출수 등 다양한 기능 이용
투톤 디자인... 5개 오브제컬렉션 컬러

알려줘’와 같이 기간별 물 사용량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제품에는 ‘맞춤 출수’ 기능도 새롭게 적용됐다.

LG 씽큐 앱에서 커피, 분유 등 자주 사용하는 물 온도와 용량을 3개까지 등록한 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설치 공간이나 취향에 맞춰 출수부 상단을 분리해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카밍 크림 화이트, 카밍 페블 그레이, 카밍 베이지, 카밍 핑크, 카밍 크림 스카이 등 5가지 오브제컬렉션 컬러를

적용했으며, 전면과 측면이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투톤 디자인을 구현했다.

신제품은 또 LG 씽큐 앱의 ‘UP가전 센터’를 통해 새 기능을 업그레이드로 추가하는 LG UP가전의 첫 번째 정수기다. 추후 음성 명령어 추가, 야간 눈부심 방지 등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제품을 5년 계약 기준 방문관리로 이용할 경우 매니저의 방문 주기에 따라 월 이용료는 4만900~4만2900원이다. 고객이 제품만 렌탈해 자가관리할 경우 월 사용료는 3만8900원이다.

/양성운 기자

벤처기업협회 SW분야 인력난 해소 나서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들의 고질적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벤처협회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소프트웨어(SW) 개발분야에 신입 개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한편 신입사원 직

무교육, 취업컨설팅, 근속유도제도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379명의 우수 인력을 기업들에게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상반기에만 840명의 청년이 벤처기업에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bada@